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에 따른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과 감사품질*

이우재(주저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초빙교수
(woojae.lie@gmail.com)
정석우(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eong@korea.ac.kr)

본 연구는 감사인이 비감사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 때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회계법인이 비감사업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면 해당 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감사 본연의 업무보다 비감사 수익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면 감사 시에 독립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에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피감사회사에 의존도가 높아져 감사품질이 저해된다는 의견과, 양질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그러나 피감사회사에 제공이 허용되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비감사용역 전면금지 시 회계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 시장을 확장하여 동일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뿐 아니라 개별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비감사서비스 매출을 이용한다. 전체 회계법인의 비감사 분야 매출총액 중 특정 회계법인의 비감사 매출액 및 세무와 컨설팅서비스별 세부 매출액을 이용한 각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을 사용함으로써 공급자인 회계법인의 수익구조에 따른 특성을 살펴본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8,484개 표본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당기 비감사서비스 구매여부와 이를 제공한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과의 상호작용변수는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을 낮춘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즉 감사인이 비감사 분야 점유율이 높을수록 피감사회사는 비감사서비스를 동시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하나, 이 때 감사인의 비감사 분야 전문성에 따라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보다는 비감사 수입에 의존도가 큼에 따라 독립성이 낮아지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감사보다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감사인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회계법인들이 감사보수 덤핑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비감사 분야에의 특화를 통해 회복하려는 전략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비감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동시에 비감사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할 때 감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비감사 시장점유율, 비감사서비스 구매, 감사품질

최초투고일: 2015. 8. 25 게재확정일: 2015. 11. 20

* 본 논문은 주저자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심사와 조언을 해주신 정석우 교수님(지도교수), 배진한 교수님, 유승원 교수님, 이한상 교수님(이상 고려대학교), 임태균 교수님(전북대학교)께 감사드립니다.

Ⅰ. 서 론

본 연구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회계법인이 비감사업무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제공 경험이 많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감사인에 비해 시장점유율 면에서 우위에 있을 경우,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DeFond, Francis, and Wong, 2000; Balsam, Krishnan, and Yang, 2003; Krishnan, 2003; Reichelt and Wang, 2010).[1] 반면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해지면 비감사보수를 낮추어 받음으로써 비정상적으로 비감사서비스를 많이 수임하여 감사 본연의 업무보다 비감사 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은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를 현재의 외부감사인에게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로부터 구매할 것인지 의사결정하게 된다.[2] 이 때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유인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감사인이 컨설팅이나 세무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감사인이 아닌 회사에 수주하는 비용이 더 크다. 감사인이 해당 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에게 구매할 유인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감사계약으로 이미 경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도 구매함으로써 결속관계가 강화된다면 경영자는 기회주의적으로 회사가 원하는 감사품질을 협상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어떠한 유인에 기인하더라도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피감사회사는 비감사서비스를 감사인에게 구매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감사인의 전문성이 제고된다면 감사품질은 향상될 것이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감사품질은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이는 실증적으로 검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국내 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서비스는 보수가 적고 부실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반면, 비감사서비스는 부실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어 회계감사에 비해 책임이 무겁지 않다. 또한 비감사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집단이 비(非)회계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위에 있어, 회계법인은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선호할 유인이 있다(이창우 · 곽수근 · 전규안, 2002). 실제로 대형회

1)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으로 측정하는 선행연구의 논리를 차용하였다. 선행연구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특정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보편적으로 이용한다(Balsam et al. 2003; Krishnan, 2003; Neal and Riley, 2004).

2) 상장기업은 동일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만 사업보고서상에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였는지는 자료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독립성 이슈는 피감사회사로부터 감사와 비감사를 동시 수임하여 경제적 관계를 갖는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이 경우로 한정한다.

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중소규모의 회계법인일수록 감사서비스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세무컨설팅, 인수합병(M&A) 등의 비감사서비스를 전문화·차별화하여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3)]

그러나 감사인이 동일 피감사회사에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병행제공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DeFond and Zhang, 2014). 첫째, 서비스를 제공 대상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보수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감사인이 이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둘째, 비감사서비스의 성격상 피감사회사에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전반에 관여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게 되므로 자기검토(self-review)의 위협이 존재한다.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의 경제적 의존도(economic dependence)가 높을수록 감사 시에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수 선행연구는 이를 이용하여 독립성 훼손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의존도는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얻는 전체 수익 대비 특정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얻는 (감사 또는 비감사) 보수로 측정한다(Chung and Kallapur, 2003; 최종학·박종일·전규안, 2005 등).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은 특정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얻는 보수가 아니라 전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비감사서비스 시장을 확장하여 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 정보를 이용한다. 회계법인의 총매출액 중 비감사서비스 수입 금액 및 세무와 컨설팅서비스 세부 금액을 이용하여 비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각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을 측정함으로써,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과 무관하게 회계법인 자체의 수익 관련 특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국내 공인회계사법은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체제 구축 또는 운영,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가치평가 등 4가지 비감사용역을 금지하고 있다. EU의 개혁방안과 비교하면 국내 공인회계사법에서 허용하는 비감사용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 금융당국 및 학계의 견해이다.[4)] 그러나 허용되는 비감사용역이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비감사용역 전면금지 시 회계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 바가 없다. 실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비감사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염가상품(loss leader)으로 감사업무가 제공되어 감사보수 할인 및 외부감사 덤핑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회계법인 본연의 업무인 감사보다 비감사서비스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화되어,[5)] 회계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상장기업의 감사 대비 비감사 업무가 늘어 보수 비중이 절반 수준을 넘었고 감사업무 부담 증가에 비해 평균 보수는 줄어 감사품질 하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감사인의 수익에서 비롯되는 특성 중 하나로 비감사서비스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의 효과가 기업

3) 〔회계법인은 변신중〕 ⑤강성원 회장 "중소법인도 차별화 시대", 조선비즈 2013년 8월 30일 기사 참고.
4) "매출 줄어들면 어쩌나" 회계법인 '초비상', 파이낸셜 뉴스, 2013년 12월 26일 기사 참고.
5)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말까지 전체 회계법인의 총매출액 대비 컨설팅서비스는 38.7%, 회계감사는 35.1%, 세무는 26.2%로 나타났다(〈2013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2014.8. 금융감독원).

의 비감사서비스 구매 의사결정과 구매 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8,484개의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피감사회사의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은 전체 비감사서비스와 세무 및 컨설팅서비스 시장에서 회계법인의 연간 점유율로 측정하며, ①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 기준과 ② 상장회사 수 기준의 두 가지 측정치를 사용한다. 감사품질의 대용치로는 피감사회사의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을 이용한다.

실증결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피감사회사가 현재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구매여부와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과의 상호작용변수는 재량적발생액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피감사회사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인이 비감사분야의 수익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경우, 비감사서비스로 인해 감사인 독립성이 낮아져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첫째, 감사인 자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 수익 의존도가 기업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과거 연구들은 특정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대체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동일감사인에게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모두 구매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 중 약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특정 피감사회사에의 경제적 의존도 뿐 아니라 감사인 자체의 수입구조에 따른 영향이 독립성과 전문성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여 감사품질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6)]

둘째, 피감사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규제는 중요 현안임에도 이에 대한 선행 실증결과들은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경제적 의존도 관점에서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Salterio and Denham (1997)에 의하면 지식전이로 인한 전문성 제고 효과의 크기는 감사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감사인의 수익 구조 차원의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결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의 병행에 관한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형 및 방법, 표본에 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6) Simunic(1984)은 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감사 및 비감사업무를 수임하는 한 독립적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지급하는 감사 및 비감사보수 정보를 포괄하는 분석을 통해 기존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2.1 선행연구 검토

2.1.1 감사인의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이 동일 회사에 대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제공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과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지식전이효과(knowledge spillove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축적한 피감사회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감사업무에 활용됨으로써 감사기술수준이 향상되어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 감사와 비감사서비스 모두 회사의 사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식의 전이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반면 비감사서비스 보수는 감사보수와 함께 감사인의 전체 수익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감사인의 경제적의존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피감사회사와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심해질 경우 감사고객을 잃을 것에 대한 위험 때문에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Frankel, Johnson, and Nelson, 2002; 마희영・오광욱・채수준, 2014). 또 감사인 본연의 역할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진 독립적 외부 감시인임에도 특정 비감사 업무를 통해 감사인이 경영자의 역할을 한다면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감사품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DeFond and Zhang, 2014).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상대적 변화 혹은 둘의 상쇄효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감사품질의 변화는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 오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그러나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품질과 피감사회사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실증결과들을 일관되게 요약하기 어렵다.

2.1.2 비감사서비스 구매 의사결정

기업이 자신의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유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은 비감사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면 현재의 외부감사인에게 구매할 것인지, 기타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로부터 구매할 것인지를 의사결정하게 된다.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습득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세무서비스를 예로 들면, 외부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에 대해 형성된 세부적 지식을 감사위험 평가에 이용하고 반대로 감사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향후 기업이 처할 과세지위(tax position)를 추정하는데 활용한다(Simunic 1984; Beck, Frecka, and Solomon, 1988). 이는 감사인이 감사와 세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고 오히려 지식의 전이를 통해 감사품질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또는 세무서비스 보수 수준에 따른 재무보고측면에서 구매효과를 분석하였다(Kinney, Palmrose, and Scholz, 2004; Gleason and Mills, 2011). 감사인의 독립성 유인보다 전문성에 따른 조세부담 최소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무대리인으로 감사인을 고용하며, 그 성과가 기대보다 크면 세무대리인으로서 감사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계속 구매할 것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으로서 감사인을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 Lassila, Omer, and Shelley(2010)는 Sarbanes-Oxley Act(SOX) 2002가 발효되면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규제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이 감사인을 세무서비스 제공자로 유지하는지 혹은 해고하는지 조사하였다. 기업의 세무보고 및 영업이 복잡할수록, 기업의 지배구조가 강할수록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 구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인에 대한 외관상 독립성을 높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구매의 비용 대비 효익 측면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보다 전문성 제고에 따른 지식의 전이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컨설팅서비스를 연구한 예로, Parkash and Venable (1993)은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지식전이 효과를 통한 감사보수 인하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가시켜 대리인비용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비감사서비스를 반복적인 서비스와 일회성 서비스로 구분하고, 반복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세무서비스와 재무정보체제 관련 컨설팅서비스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문제와 지식전이 효과 모두 크고 대리인비용이 감사인으로부터의 비감사서비스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외부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이 강하여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Kinney and Libby(2002)의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1.3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수익과 감사품질

감사인의 감사 및 비감사업무 병행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대부분 피감사회사로부터 받는 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도 또는 고객중요도가 증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는지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Dopuch and King(1991)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와, 감사 혹은 비감사서비스 중 하나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감사인의 노력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감사인이 고품질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명성의 손실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연구는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에 비감사서비스 품질이 감사나 비감사서비스 중 하나만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Frankel et al.(2002)에서는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많이 구매한 기업일수록 보다 발생액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기업의 공시이익이 재무분석가의 예측치와 같거나 약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였다. Ferguson, Seow, and Young (2004)의 연구에서도 영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피감사회사의 중요도가 재량적발생액의 크기나 재무제표 재수정(restatement)과 양(+)의 관련성을 검증하

였다. 이는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해짐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져 이익조정을 발견하는 데 덜 엄격하고, 투자자 역시 이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Larker and Richardson(2004)의 연구결과는 비감사서비스를 많이 제공받는 기업들에서 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특정한 경우 한해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Li(2009)는 SOX 이전 기간에는 고객의 중요도와 감사의견 표명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SOX 이후 기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Big 4 감사인에 의한 결과임을 발견하였다.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감사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은 주로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에서 명성의 훼손이나 부실감사로 인한 소송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행동한다고 언급한다.

Chung and Kallapur(2003)는 감사인의 총수입 중 특정 피감사회사의 비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사인의 고객 중요도(client importance)로 보고, 이것이 재량적발생액과 가지는 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Ruddock, Taylor, and Taylor(2006)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또 Big 6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보다 보수적인 재무보고를 하도록 유도하며, 감사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독립성 손상의 영향이 적다고 보았다.

종합해보면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선행연구 결과들은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권수영・손성규, 2002; 최종학 외, 2005). 일례로 홍준영・류지윤・윤성수(2006)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데, 이는 지식의 전이나 학습효과, 또는 경제적의존도의 심화로 감사노력 투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확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감사와 비감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감사인의 감사품질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mby and Dividson(1998)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감사서비스일 경우 재무보고에 있어 경영자의 압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기업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일 것이므로, 이 때 감사인이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의존도의 영향을 받기보다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가설 설정

회계법인이 특정 비감사서비스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풍부한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전문성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다. 회계법인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투자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을 통해 명성을 쌓을 것이기 때문이다(Lim and Tan, 2010). 또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에 대해 재무보고체제를 비롯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으므로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 간 지식의 전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회사가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 제공자로 현재 감사인을 선택할 것인지 의사결정에 있어 감사인의 비감사 분야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기업은 비감사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를 현재 감사인에게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로부터 구매할 것인지 의사결정하게 된다. 이 때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유인은 다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감사인이 컨설팅이나 세무관련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감사인이 아닌 회사에 수주하는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때 감사인이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높고 특정 서비스에 특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에게 구매할 유인이 더욱 커질 것이다(DeFond et al. 2000). 둘째, 감사계약으로 인해 경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도 구매함으로써 이 관계가 강화된다면, 경영자는 감사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기회주의적으로 감사품질을 유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높은 비감사 시장점유율은 사후적으로 회계법인이 비감사 수익에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므로 감사 업무 시에 지식전이로 인한 효율성의 제고 효과보다 독립성이 낮아지는 정도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우려대로 감사인이 감사보다 비감사업무에 치중하여 비감사 수익에 의존도가 높다면, 비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고객기업을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명성의 손상을 회피하고자 비보수적인(unconservative) 감사를 제공하거나 경영자의 감사의견 구매(opinion shopping)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Chung and Kallapur 2003).

두 가지 요인 중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유인이 작용하는지 사전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높다면 현재 감사인에게 구매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비감사서비스 구매 의사결정 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현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감사인이 비감사업무 병행 제공 시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피감사회사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로, Lim and Tan(2010)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감사품질의 훼손 가능성이 있지만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였다면 오히려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산업전문감사인은 명성의 손실과 소송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동시에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전이의 혜택 역시 더 크다. 따라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비감사서비스도 제공할 경우, 경제적 유대관계로 인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존재함에도 감사인의 명성이나 소송위험, 감사 효율성이 더 크다면 감사품질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Lim and Tan(2010)이 감사인의 감사분야 전문성에 따라 비감사업무 시에 지식전이 효과가 증가하여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였다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해당 비감사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인 연구로 McGuire, Omer, and Wang(2012)을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세무분야에서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감사인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더 많이 실시한다고 하였다. 동 연구는 산업, 도시별로 모든 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받은 세무서비스 보수 대비 개별 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받은 세무서비스 보수로 세무 분

야의 시장점유율을 구하였다. 회계법인의 연간 시장점유율로 측정한 세무 분야 전문성을 이용하여, 세법에 대해 보다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감사인이 세무컨설턴트와 재무제표 감사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감사인의 특정 고객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DeAngelo(1981)는 총 감사보수 중 특정 피감사회사에 의존하는 감사보수의 비중이 크면 그 기업에 대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고객의 수가 많은 감사인은 감사실패가 발생했을 때 명성의 손상으로 인해 잃게 되는 다른 고객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감사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 감사인이 감사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숫자가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보장하는 담보 역할(collateral effect)을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이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수익이 크거나 특정 비감사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고객기업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피감사회사의 비감사서비스 수익에 대한 감사인의 의존도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독립성 훼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감사서비스로 얻는 수익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감사인은 감사 시에 독립성 훼손을 감수하면서라도 비감사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리하면,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감사 시에 효율성의 제고와 독립성의 훼손에 나타나는 변화와 이로 인한 감사품질에의 영향은 일관된 결론을 찾기 어렵고, 피감사회사 또는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회사가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해당 분야 전문성의 척도로 기대하고 구매하였더라도 이러한 전문성이 비감사 분야에만 국한되고 감사인의 비감사 의존도가 오히려 감사 시에 독립성 저해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감사 업무 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에 감사품질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가설 2〕는 방향성이 없는 귀무가설로 설정한다.

가설 2: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은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III. 연구설계 및 표본 구성

3.1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의 측정

본 연구는 전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비감사서비스 시장을 확장하여 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 정보를 이용한다.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은 McGuire et al.(2012)을 참고하여 전체 비감사서비스와 세무 및 컨설팅서비스 시장에서 회계법인의 연간 점유율로 측정하며, ①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 기준과 ② 상장회사 수 기준의 두 가지 측정치를 사용한다. 회사 수로 산정한 측정치는 금액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출하였을 때 특정 회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감사인의 감사업무에서의 산업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감사보수, 피감사회사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 규모, 피감사회사 수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측정하는 것과도 유사하

다.[7]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적어도 회계법인이 해당 분야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특정 비감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유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함을 의미한다.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 비감사서비스 수임 계약 시에 시장점유율이 고려된다면 당기 이전의 정보가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시장점유율 산정 시 전기의 매출액과 피감사 회사 수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각 측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NAMS_Rev_{ijt-1}$ ($TaxMS_Rev_{ijt-1}$, $ConMS_Rev_{ijt-1}$)

$$= \frac{\text{회계법인 } j\text{의 } (t-1)\text{년도 비감사서비스(전체, 세무 or 컨설팅) 매출액}}{\text{모든 회계법인의 } (t-1)\text{년도 비감사서비스(전체, 세무 or 컨설팅) 총매출액}}$$

② $NAMS_N_{ijt-1}$ ($TaxMS_N_{ijt-1}$, $ConMS_N_{ijt-1}$)

$$= \frac{\text{상장기업 중 회계법인 } j\text{로부터 } (t-1)\text{년도에 비감사서비스(전체, 세무 or 컨설팅)를 구매한 피감사회사의 수}}{(t-1)\text{년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전체, 세무 or 컨설팅)를 구매한 상장기업의 수}}$$

세부 서비스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기업의 비감사서비스 구매 관련 의사결정이나 구매 시에 감사품질에 나타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 전체 수준과 개별 세무 및 컨설팅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의 영향을 각각 살펴본다.[8]

3.2 연구모형 설정

3.2.1 기업의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구매 의사결정 모형

기업이 현재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수익관련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 1〕을 식 (1) 및 (2)를 이용하여 로짓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begin{aligned} PURCH_{ijt}\ (TaxPURCH_{ijt},\ ConPURCH_{ijt}) &= a_0 + a_1 \mathbf{NAMS_Rev_{ijt-1}}(\mathbf{TaxMS_Rev_{ijt-1}},\ \mathbf{ConMS_Rev_{ijt-1}}) + a_2 SIZE_{it} + a_3 LEV_{it} \\ &+ a_4 LOSS_{it-1} + a_5 LargeOWN_{it} + a_6 BIG_{it} \\ &+ a_7 AF_LEV_{it} + a_8 LogAFEE_{it} \\ &+ a_9 LogTENURE_{it} + a_{10} \Sigma Industry_{it} \\ &+ a_{11} \Sigma Year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

$$\begin{aligned} PURCH_{ijt}\ (TaxPURCH_{ijt},\ ConPURCH_{ijt}) &= \beta_0 + \beta_1 \mathbf{NAMS_N_{ijt-1}}(\mathbf{TaxMS_N_{ijt-1}},\ \mathbf{ConMS_N_{ij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 \beta_4 LOSS_{it-1} + \beta_5 LargeOWN_{it} + \beta_6 BIG_{it} \\ &+ \beta_7 AF_LEV_{it} + \beta_8 LogAFEE_{it} \\ &+ \beta_9 LogTENURE_{it} + \beta_{10} \Sigma Industry_{it} \\ &+ \beta_{11} \Sigma Year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2)$$

7) Neal and Riley(2004)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측정하는 데 portfolio share보다 market share로 접근하는 방법이 우월하다고 하였다. 기업이 감사 또는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 감사인 자체의 수익구조보다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통해 전문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시장점유율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8) 세부 비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구매여부(*TaxPURCH, ConPURCH*)와 비감사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점유율이 아닌 해당 서비스 각각의 점유율($TaxMS_Rev_{ijt-1}$, $ConMS_Rev_{ijt-1}$, $TaxMS_N_{ijt-1}$, $ConMS_N_{ijt-1}$)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i는 기업, j는 감사인, t는 연도를 의미

PURCH = 동일감사인으로부터 당기에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1, 아니면 0;
(1) *TaxPURCH* = 동일감사인으로부터 당기에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1, 아니면 0;
(2) *ConPURCH* = 동일감사인으로부터 당기에 컨설팅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1, 아니면 0;
NAMS_Rev =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매출액으로 구한 시장점유율;
(1) *TaxMS_Rev* = 세무서비스 매출액으로 구한 시장점유율;
(2) *ConMS_Rev* = 컨설팅서비스 매출액으로 구한 시장점유율;
NAMS_N = 상장기업 수 기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
(1) *TaxMS_N* = 세무서비스에 대해 기업 수를 기준으로 구한 시장점유율;
(2) *ConMS_N* = 컨설팅서비스에 대해 기업 수를 기준으로 구한 시장점유율;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백 만원 단위);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LOSS = 전기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으면 1, 아니면 0;
LargeOWN = 최대주주지분율;
BIG = 대형회계법인인 경우 1, 아니면 0;
AF_LEV = 회계법인의 부채비율;
LogA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
LogTENURE = 계속감사기간의 자연로그값;
Industry = 산업별 고정효과;
Year = 연도별 고정효과.

여기서 종속변수는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여부(*PURCH*)이며,[9] 관심변수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NAMS_Rev* 또는 *NAMS_N*)이다. 연구모형 (1)에서 *NAMS_Rev*의 회귀계수인 a_1과 연구모형 (2)에서 *NAMS_N*의 회귀계수인 β_1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면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현재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기업이 현재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시장의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모니터링을 많이 받는다. 이는 부채비율(*LEV*)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또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외부주주나 채권자 등에게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유인이 있다. 결손기업(*LOSS*)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여 재무보고 상 결손을 회피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10] 최대주주지분율(*LargeOWN*)은 재무보고 비용의 대용치로(Fan and Wong 2005), 경영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을수록 대리인 비용이 적어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될 수 있음에 따라(Firth 1997) 감사인에게 비감

9) 전기에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경험($PURCH_{t-1}$, $TaxPURCH_{t-1}$, $ConPURCH_{t-1}$)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일회성이 아닌 다기간에 걸친 비감사 계약 또는 반복적 성격을 가지는 비감사 구매의 효과를 통제해 보았다. 여러 회계기간에 걸친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피감사회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어 지식이전효과가 커지는 반면(Beck et al.1988), 이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투입원가 절감효과로 인해 피감사회사와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독립성 훼손의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는 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0) 특히 세무서비스의 경우에는 재무보고서상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재무보고비용보다 조세부담 최소화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외부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이영한·윤성만 2011).

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보수 규모(*LogAFEE*)는 기업규모와 회계처리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감사인이 투입하는 시간과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감사인이 동일 피감사회사에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보수를 할인해 주는 등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rtin and Pittman 2008). 계속감사기간(*LogTENURE*)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 정도와 비례할 것이며, 경제적 유대관계의 결속 정도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기업이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 구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대형감사인(*BIG*)일수록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감사인에 비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며 상호검토(peer-review)를 철저히 하여 감사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면(Dopuch and Simunic 1982)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형감사인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외국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구축된 내부인프라를 통해 비감사 분야도 체계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나라 감사인 시장에서 업무수임 경쟁이 치열함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의 재무건전성이 비감사서비스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회계법인의 부채비율(*AF_LEV*)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더미변수(*ΣIndustry*)와 연도더미변수(*ΣYear*)를 통제하였다. 산업마다 거래형태의 복잡성 정도나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필요한 정도가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도에 따라 회계기준 또는 감사기준의 변경이나 세법개정 등의 거시적 요인의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이를 통제하였다.

3.2.2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 감사품질 모형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에 따라 감사품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식 (3) 및 (4)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Kothari, Leone, and Wasley (2005)에 따라 측정한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PMDA*)을 이용한다. 아래에 제시한 감사품질 모형은 Butler, Leone, and Willenborg(2004) 및 Lawrence, Minutti-Meza, and Zhang(2011) 등에서 사용한 재량적발생액 모형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에 추가변수들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
\begin{aligned}
PMDA_i = {} & \gamma_0 + \gamma_1 PURCH_{it}(TaxPURCH_{ijt}, \\
& ConPURCH_{ijt}) + \gamma_2 NAMS_Rev_{ijt-1} \\
& (TaxMS_Rev_{ijt-1}, ConMS_Rev_{ijt-1}) \\
& + \gamma_3 \mathbf{PURCH_{it} \times NAMS_Rev_{ijt-1}} \\
& \mathbf{(TaxPURCH_{ijt} \times TaxMS_Rev_{ijt-1},} \\
& \mathbf{ConPURCH_{ijt} \times ConMS_Rev_{ijt-1})} \\
& + \gamma_4 SIZE_{it} + \gamma_5 LEV_{it} + \gamma_6 CFO_{it} \\
& + \gamma_7 INVREC_{it} + \gamma_8 LOSS_{t-1} + \gamma_9 SalesGRW_{it} \\
& + \gamma_{10} TACC_{it} + \gamma_{11} ISSUE_{it} + \gamma_{12} BIG_{it} \\
& + \gamma_{13} LogTFEE_{it} + \gamma_{14} OPIN_{it} \\
& + \gamma_{15} CHANGE_{it} + \gamma_{16} Market_{it} \\
& + \gamma_{17} \Sigma Industry_{it} + \gamma_{18} \Sigma Year_{it} + \varepsilon_{it} \qquad (3)
\end{aligned}
$$

$$
\begin{aligned}
PMDA_{it} = {} & \delta_0 + \delta_1 PURCH_{it}(TaxPURCH_{ijt}, \\
& ConPURCH_{ijt}) + \delta_2 NAMS_N_{ijt-1}
\end{aligned}
$$

$$
\begin{aligned}
&(TaxMS_N_{ijt-1}, ConMS_N_{ijt-1})\\
&+\delta_3 PURCH_{it}\times NAMS_N_{ijt-1}\\
&(TaxPURCH_{ijt}\times TaxMS_N_{ijt-1},\\
&ConPURCH_{ijt}\times ConMS_N_{ijt-1})\\
&+\delta_4 SIZE_{it}+\delta_5 LEV_{it}+\delta_6 CFO_{it}\\
&+\delta_7 INVREC_{it}+\delta_8 LOSS_{t-1}+\delta_9 SalesGRW_{it}\\
&+\delta_{10} TACC_{it}+\delta_{11} ISSUE_{it}+\delta_{12} BIG_{it}\\
&+\delta_{13} LogTFEE_{it}+\delta_{14} OPIN_{it}\\
&+\delta_{15} CHANGE_{it}+\delta_{16} Market_{it}\\
&+\delta_{17}\Sigma Industry_{it}+\delta_{18}\Sigma Year_{it}+\varepsilon_{it} \qquad (4)
\end{aligned}
$$

여기서 i는 기업, j는 감사인, t는 연도를 의미

PMDA = Kothari et al.(2005)에 따른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백 만원 단위);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INVREC =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SalesGRW = 전기 대비 매출액증가율;
TACC = 전기발생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ISSUE = 당기 총발행주식수가 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으면 1, 아니면 0;
LogTFEE =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합계의 자연로그값;
OPIN = 감사의견이 적정이외의 의견이면 1, 아니면 0;
CHANGE = 당기에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면 1, 아니면 0;
Market = 유가증권상장기업이면 1, 코스닥등록기업이면 0;
기타 변수의 정의는 식 (1) 및 (2)를 참고.

식 (3)과 식 (4)에서 관심변수인 *PURCH*와 *NAMS_Rev* 또는 *PURCH*와 *NAMS_N* 간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인 γ_3와 δ_3는 유의한 양(+) 또는 음(-)의 부호를 가진다면, 이는 기업이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때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향상 또는 저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기업규모(*SIZE*), 전기순손실 보고여부(*LOSS*), 매출액성장률(*SalesGRW*)을 포함하였으며, 부채비율(*LEV*)을 통해 기업이 가지는 재무위험이 재량적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Lawrence et al. 2011).

감사인 관련 특성으로 대형 외국회계법인과 제휴를 맺은 감사인(*BIG*) 여부를 추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모가 큰 감사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량적발생액과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 감사부문과 비감사부문 간의 chinese-wall이 높아 동일감사인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더라도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이영한・윤성만 2011). 이에 외부감사인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에의 영향을 추가로 통제하였다.[11)]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받은 감사와 피감사보수의 합계(*LogTFEE*)는 피감사회사에의 경제적 예속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로 재량적발생액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상장된 시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의 유형(*Market*)과 소속 산업($\Sigma Industry$), 그리고 연도($\Sigma Year$)에 따라 표본기업에 공통적으

11) *BIG*과 *ASIZE*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VIF를 확인해본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 10을 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로 상관성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통제하였다.

3.3 연구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1)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
(2) 12월 결산법인(결산월 변경기업 제외)
(3) 기업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인, 감사보수, 감사시간, 비감사보수를 구할 수 있는 기업
(4)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상 매출액 구성 내역 및 재무현황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5) TS2000에서 필요한 재무자료 추출이 가능한 기업

금융관련 업종은 기타 제조업종과 영업의 성격 및 재무정보의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비금융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결산월에 따른 표본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월 결산기업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표본 구성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 및 비감사보수에 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제출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집하며, 회계법인의 매출 구성 및 재무 정보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였다. 기업의 재무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극단치(outlier)가 회귀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속변수에 대하여 상·하위 1%를 벗어나는 극단치를 각각 99%와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였다(winsorization). 이러한 표본 추출 과정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표본의 수는 8,484개(기업/연도)이다.

〈표 1〉의 Panel A는 표본의 연도별 분포를 제시한다. 연도별 표본의 수는 2005년 787개, 2012년 1,332개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12)]

〈표 1〉 연도별 표본의 분포

Year	표본 수	비중 (%)
2005	787	9.28
2006	874	10.30
2007	946	11.15
2008	1,012	11.93
2009	1,123	13.24
2010	1,174	13.84
2011	1,236	14.57
2012	1,332	15.70
Total	8,484	100.00

12) 연구모형에서 연도더미를 포함한 것 외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2011년과 2012년 표본에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으나 주요 결과는 질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다음의 〈표 2〉에서는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관심변수인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비감사서비스의 경우(*NAMS_Rev*) 평균 9.2%, 세무서비스(*TaxMS_Rev*)는 7.8%, 컨설팅서비스(*ConMS_Rev*)는 11.7%로 관찰된다. 상장기업 중 피감사회사의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전체 비감사서비스(*NAMS_N*) 10.7%, 세무서비스(*TaxMS_N*) 10.4%, 컨설팅서비스(*ConMS_N*) 11.6%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상장기업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수익까지 포괄하여 계산된다는 점에서 피감사회사 수 기준 시장점유율과 차이가 있으며, 후자가 각 서비스에 대해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약간 높았다.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PURCH*)은 평균 약 27.5%이다. 세무서비스를 감사인에게 받는 기업(*TaxPURCH*)은 평균 13.3%, 컨설팅서비스를 감사인에게 구매하는 기업(*ConPURCH*)은 평균 11.0%로 나타났다.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한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PMDA*)은 평균이 0.001, 중위수는 -0.002로 0에 근접하며 고른 분포 형태를 가진다.

감사 관련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약 55.6%의 기업들이 대형감사인(*BIG*)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으며, 평균적으로 15.8%의 표본에서 감사인 교체(*CHANGE*)가 일어난다. 표본 상장기업들의 평균 감사보수는 9천5십여 만 원, 중간값은 6천만 원이었으며,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비감사보수의 평균 금액은 1천4백여 만 원으로 나타났다.[13] 회계법인의 매출액 중 감사업무 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감사집중도(*Waudit*)는 약 43.9%로 확인된다.[14]

〈표 3〉의 Panel A에서는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 구매여부(*PURCH*)는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NAMS_Rev*, *NAMS_N*)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가진다. 세부 서비스별로도 세무서비스 구매여부(*TaxPURCH*)와 시장점유율(*TaxMS_Rev* 또는 *TaxMS_N*), 컨설팅서비스 구매여부(*ConPURCH*)와 시장점유율(*ConMS_Rev* 또는 *ConMS_N*)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 관련 변수들은 *BIG*과의 상관관계가 약 0.6~0.8로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대형감사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연구모형에 *BIG*을 통제하고 있으며,

13) 각주 8에서 전술하였듯이 현행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동일감사인에게 제공받은 비감사서비스 내역과 보수만 공시되므로 *Sum_NAFEE*는 감사인에게 지급한 비감사보수에만 해당되어 감사보수와 비교하여 값이 현저하게 작다. 2013년 8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12 사업연도 전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매출액은 7,265억 원(36.1%), 비감사업무 중 세무서비스 매출액은 5,101억 원(25.4%), 컨설팅서비스 매출액은 7,756억 원(38.5%)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비감사부문에서 회계법인의 수입이 감사부문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14)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회계법인의 규모별로 비감사 시장점유율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에 있어 대형감사인의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실증분석 시 *BIG* 변수를 통제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 관심변수를 제외하고도 *BIG*의 결과는 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본 연구에서 비감사 시장점유율의 효과가 대형감사인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2〉 기술통계량 (N=8,484)

Variable	Mean	Std.	Min.	25%	Median	75%	Max.
NAMS_Rev	0.092	0.105	0.001	0.009	0.068	0.127	0.373
TaxMS_Rev	0.078	0.080	0.001	0.009	0.064	0.106	0.263
ConMS_Rev	0.117	0.154	0.000	0.002	0.026	0.172	0.561
NAMS_N	0.107	0.100	0.000	0.012	0.089	0.165	0.370
TaxMS_N	0.104	0.100	0.000	0.015	0.090	0.163	0.375
ConMS_N	0.116	0.128	0.000	0.008	0.091	0.189	0.571
PMDA	0.001	0.101	-0.319	-0.051	-0.002	0.049	0.343
PURCH	0.275	0.447	0.000	0.000	0.000	1.000	1.000
TaxPURCH	0.133	0.340	0.000	0.000	0.000	0.000	1.000
ConPURCH	0.110	0.313	0.000	0.000	0.000	0.000	1.000
Sum_NAFEE	14,032	48,035	0.000	0.000	0.000	4,000	350,000
Sum_AUDFEE	90,552	102,899	20,000	44,000	60,000	87,000	690,000
LogAFEE	11.119	0.665	9.903	10.692	11.002	11.374	13.444
LogTFEE	11.215	0.728	9.952	10.714	11.082	11.503	13.762
BIG	0.556	0.497	0.000	0.000	1.000	1.000	1.000
LogTENURE	1.491	0.527	0.693	1.099	1.386	1.792	3.045
Waudit	0.439	0.107	0.190	0.361	0.433	0.500	0.743
AF_LEV	0.631	0.105	0.329	0.577	0.647	0.687	0.914
OPIN	0.002	0.050	0.000	0.000	0.000	0.000	1.000
CHANGE	0.158	0.364	0.000	0.000	0.000	0.000	1.000
SIZE	18.798	1.404	16.336	17.842	18.510	19.485	23.422
LEV	0.419	0.199	0.039	0.263	0.422	0.564	0.899
CFO	0.043	0.106	-0.306	-0.012	0.042	0.102	0.337
INVREC	0.297	0.163	0.000	0.175	0.281	0.404	0.736
LOSS	0.262	0.440	0.000	0.000	0.000	1.000	1.000
LargeOWN	0.178	0.216	0.000	0.000	0.000	0.345	0.728
SalesGRW	0.082	0.292	-0.750	-0.043	0.051	0.175	1.372
TACC	-0.029	0.125	-0.578	-0.078	-0.018	0.035	0.307
ISSUE	0.171	0.376	0.000	0.000	0.000	0.000	1.000
Market	0.445	0.497	0.000	0.000	0.000	1.000	1.000

변수 정의:
Sum_NAFEE = 감사보수 (천 원 단위);
Sum_AUDFEE = 비감사보수 (천 원 단위);
Waudit = 감사인의 총매출액 대비 감사수입 비중으로, 감사집중도를 의미;
기타 변수의 정의는 연구모형(1)~(4)를 참고.

〈표 3〉 변수들의 Pearson 상관관계

Panel A. 구매의사 결정모형의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PURCH	1.000															
2. TaxPURCH	0.618															
3. ConPURCH	0.560	-0.132														
4. NAMS_Rev	0.171	0.108	0.105													
5. NAMS_N	0.176	0.111	0.105	0.933												
6. TaxMS_Rev	0.170	0.109	0.103	0.989	0.939											
7. TaxMS_N	0.172	0.117	0.097	0.932	0.973	0.948										
8. ConMS_Rev	0.167	0.108	0.100	0.969	0.897	0.946	0.892									
9. ConMS_N	0.161	0.098	0.100	0.865	0.938	0.849	0.852	0.831								
10. SIZE	0.129	0.020	0.134	0.277	0.328	0.291	0.315	0.262	0.277							
11. LEV	-0.015	-0.037	0.013	0.014	0.015	0.015	0.017	0.013	0.012	0.195						
12. LOSS	-0.039	-0.033	-0.032	-0.076	-0.091	-0.081	-0.087	-0.070	-0.076	-0.231	0.182					
13. LargeOWN	0.032	0.031	-0.010	0.033	0.042	0.048	0.033	0.020	0.063	-0.041	-0.016	-0.067				
14. BIG	0.158	0.083	0.105	0.709	0.835	0.751	0.794	0.641	0.741	0.385	0.030	-0.118	0.035			
15. AF_LEV	-0.021	-0.033	-0.004	-0.251	-0.163	-0.240	-0.191	-0.291	-0.130	-0.024	-0.006	-0.008	0.118	-0.013		
16. LogAFEE	0.157	0.043	0.141	0.312	0.353	0.326	0.345	0.296	0.304	0.816	0.225	-0.097	-0.063	0.380	-0.047	
17. LogTENURE	0.044	0.041	0.020	0.097	0.128	0.101	0.114	0.076	0.142	0.122	-0.020	-0.096	-0.020	0.122	0.026	0.140

〈표 3〉 변수들의 Pearson 상관관계 (계속)

Panel B. 감사품질모형의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PMDA*	1.000																					
2. *PURCH*	-0.031																					
3. TaxPURCH	-0.006	0.618																				
4. ConPURCH	-0.032	0.560	-0.132																			
5. NAMS_Rev	-0.041	0.171	0.108	0.105																		
6. NAMS_N	-0.045	0.176	0.111	0.105	0.933																	
7. TaxMS_Rev	-0.043	0.170	0.109	0.103	0.989	0.939																
8. TaxMS_N	-0.044	0.172	0.117	0.097	0.932	0.973	0.948															
9. ConMS_Rev	-0.038	0.167	0.108	0.100	0.969	0.897	0.946	0.892														
10. ConMS_N	-0.042	0.161	0.098	0.100	0.865	0.938	0.849	0.852	0.831													
11. SIZE	-0.087	0.129	0.020	0.134	0.277	0.328	0.291	0.315	0.262	0.277												
12. LEV	-0.023	-0.015	-0.037	0.013	0.014	0.015	0.015	0.017	0.013	0.012	0.195											
13. CFO	-0.552	0.063	0.053	0.040	0.081	0.092	0.083	0.087	0.075	0.086	0.099	-0.179										
14. INVREC	0.108	-0.036	-0.012	-0.033	-0.059	-0.066	-0.059	-0.068	-0.058	-0.053	-0.137	0.266	-0.124									
15. LOSS	0.032	-0.035	-0.026	-0.042	-0.070	-0.081	-0.073	-0.073	-0.065	-0.074	-0.205	0.220	-0.353	-0.050								
16. SalesGRW	-0.012	0.022	0.008	0.020	-0.008	-0.011	-0.007	-0.009	-0.006	-0.016	0.044	0.113	0.140	0.160	-0.209							
17. TACC	-0.008	-0.014	0.008	-0.012	0.029	0.037	0.034	0.037	0.024	0.025	0.165	-0.066	0.073	0.123	-0.174	0.009						
18. ISSUE	0.046	-0.007	-0.021	-0.006	-0.061	-0.075	-0.063	-0.072	-0.054	-0.068	-0.151	0.085	-0.153	-0.001	0.178	0.058	-0.112					
19. BIG	-0.041	0.158	0.083	0.105	0.709	0.835	0.751	0.794	0.641	0.741	0.385	0.030	0.093	-0.054	-0.102	-0.006	0.063	-0.088				
20. LogTFEE	-0.090	0.351	0.069	0.352	0.340	0.375	0.352	0.367	0.324	0.326	0.783	0.200	0.068	-0.123	-0.080	0.014	0.039	-0.079	0.392			
21. OPIN	-0.039	-0.020	-0.020	-0.002	-0.027	-0.029	-0.027	-0.028	-0.025	-0.029	-0.027	0.073	-0.047	-0.020	0.078	-0.051	-0.039	0.028	-0.027	-0.001		
22. INITIAL	0.009	-0.028	-0.025	-0.019	-0.044	-0.063	-0.043	-0.054	-0.039	-0.070	-0.055	0.029	-0.042	0.004	0.045	0.044	-0.066	0.050	-0.052	-0.062	0.005	
23. *Market*	-0.049	0.099	0.043	0.084	0.163	0.207	0.172	0.192	0.148	0.183	0.554	0.084	-0.002	-0.020	-0.123	-0.034	0.116	-0.144	0.254	0.416	-0.021	-0.018

1) ***, **, *는 양측검정의 p-value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모든 분석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Panel B는 감사품질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PMDA*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구매(*PURCH*)와 컨설팅서비스 구매(*ConPURCH*) 시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는 감사업무를 통해 피감사회사에 대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는 감사인에게 비감사(컨설팅)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로 재무제표 품질이 제고되어 재량적발생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감사인의 모든 비감사 시장점유율 변수들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와 비감사를 동시구매한 경우에 비감사 시장점유율에 따른 감사품질에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다중회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2 회귀분석 결과

4.2.1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

〈표 4〉는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 구매를 결정하는 데 유의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Panel A는 감사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한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을 사용한 결과이며, Panel B는 피감사회사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시장점유율을 사용한 결과이다. 시장점유율 측정 방법과 무관하게 감사인이 비감사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Panel A를 살펴보면, 총 비감사서비스(*NAMS_Rev*)와 세무서비스(*TaxMS_Rev*) 및 컨설팅서비스(*ConMS_Rev*)에 대한 감사인의 수익비중이 높아질수록 해당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구매 가능성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각각 Chi-sq=33.48, 26.41, 8.62). 시장점유율 변수들이 전기의 자료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감사인들이 전년도에 비감사시장에서 점유한 비중이 피감사회사들의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중요 요소로 고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변수를 보면 세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변수는 감사보수(*LogAFEE*)로,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와의 강한 양(+)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부채비율(*LEV*)은 총 비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에 대한 구매여부와 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회계법인 여부(*BIG*)는 전체 비감사서비스 및 컨설팅서비스 구매와만 양(+)의 관련성을 보인다. 이는 세무 분야에 특화된 인력 및 업무능력을 갖춘 중소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받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Panel B의 분석결과도 Panel A에서와 유사하다. 전체 수준의 비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에 대한 감사인의 시장점유율(*NAMS_N, TaxMS_N*)이 높아질수록 해당 비감사서비스 구매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Chi-sq=27.64, 35.11). 다만 피감사회사 수 기준으로 측정한 컨설팅서비스 시장점유율(*ConMS_N*)은 구매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의 감사품질

〈표 5〉는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 측정치별로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Kothari et al.(2005)에 따라 산출된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PMDA*)을 감사

〈표 4〉 회계법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과 피감사회사의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 로짓분석 결과 (가설1의 검증)

Panel A.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 (*NAMS_Rev*)

$PURCH_{ijt}(TaxPURCH_{ijt},\ ConPURCH_{ijt}) =$

$$a_0 + a_1 \mathbf{NAMS_Rev_{ijt-1}}(\mathbf{TaxMS_Rev_{ijt-1},\ ConMS_Rev_{ijt-1}}) + \sum Controls_{it} + \varepsilon_{it}$$

Variable	Dep. = *PURCH*		Dep. = *TaxPURCH*		Dep. = *ConPURCH*	
	Estimate	Chi-sq	Estimate	Chi-sq	Estimate	Chi-sq
Intercept	-5.881***	94.12	-3.475***	19.26	-7.977***	91.47
NAMS_Rev	**2.032*** **	**33.48**				
TaxMS_Rev			**3.195*** **	**26.41**		
ConMS_Rev					**0.945*** **	**8.62**
SIZE	0.003	0.01	-0.097**	4.34	0.056	1.18
LEV	-0.567***	15.39	-0.625***	11.20	-0.042	0.04
LOSS	-0.056	0.73	-0.139*	2.59	-0.158*	2.74
LargeOWN	0.055	0.10	0.432**	3.63	-0.147	0.38
BIG	0.244***	9.77	0.085	0.62	0.266***	6.12
AF_LEV	-0.122	0.19	-0.130	0.12	0.078	0.03
LogAFEE	0.405***	31.64	0.214**	5.42	0.399***	15.05
LogTENURE	0.057	1.28	0.149**	5.19	0.039	0.29
Year	Fixed		Fixed		Fixed	
Industry	Fixed		Fixed		Fixed	
Pseudo R^2	0.0990		0.0659		0.1222	
N	8,484		8,484		8,484	

Panel B.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피감사회사 수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NAMS_N*)

$PURCH_{ijt}\ (TaxPURCH_{ijt},\ ConPURCH_{ijt}) =$

$$\beta_0 + \beta_1 \mathbf{NAMS_N_{ijt-1}}(\mathbf{TaxMS_N_{ijt-1},\ ConMS_N_{ijt-1}}) + \sum Controls_{it} + \varepsilon_{it}$$

Variable	Dep. = *PURCH*		Dep. = *TaxPURCH*		Dep. = *ConPURCH*	
	Estimate	Chi-sq	Estimate	Chi-sq	Estimate	Chi-sq
Intercept	-5.864***	93.57	-3.461***	19.10	-7.891***	89.74
NAMS_N	**2.438*** **	**27.64**				
TaxMS_N			**3.054*** **	**35.11**		
ConMS_N					**0.516**	**1.79**
SIZE	0.001	0.00	-0.098**	4.39	0.054	1.08
LEV	-0.562***	15.10	-0.619***	10.96	-0.048	0.05
LOSS	-0.059	0.81	-0.143*	2.77	-0.158*	2.75
LargeOWN	0.056	0.11	0.438**	3.70	-0.147	0.38
BIG	0.141	2.13	-0.019	0.03	0.354***	9.73
AF_LEV	-0.274	0.98	-0.166	0.21	-0.303	0.58
LogAFEE	0.409***	32.34	0.211**	5.25	0.415***	16.27
LogTENURE	0.053	1.10	0.144**	4.84	0.036	0.25
Year	Fixed		Fixed		Fixed	
Industry	Fixed		Fixed		Fixed	
Pseudo R^2	0.0981		0.0677		0.1207	
N	8,484		8,484		8,484	

1) ***, **, *는 양측검정의 p-value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표 5〉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 비감사 시장점유율에 따른
감사품질에의 영향: 회귀분석 결과 (가설2의 검증)

Panel A.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 (*NAMS_Rev*)

$$PMDA_i = \gamma_0 + \gamma_1 PURCH_{it}(TaxPURCH_{ijt},\ ConPURCH_{ijt}) + \gamma_2 NAMS_Rev_{ijt-1}(TaxMS_Rev_{ijt-1},\ ConMS_Rev_{ijt-1}) + \gamma_3 \mathbf{PURCH_{it} \times NAMS_Rev_{ijt-1}(TaxPURCH_{ijt} \times TaxMS_Rev_{ijt-1},\ ConPURCH_{ijt} \times ConMS_Rev_{ijt-1})} + \sum Controls_{it} + \varepsilon_{i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PMDA*					
	Overall NAS		Tax service		Consulting service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138***	6.95	0.129***	6.84	0.131***	6.52
PURCH	-0.002	-0.56	0.001	0.29	0.000	0.04
MS_Rev	-0.015	-1.05	-0.008	-0.42	0.001	0.08
PURCH ×NAMS_Rev	**0.037****	**2.03**				
TaxPURCH ×TaxMS_Rev			**0.029**	**0.97**		
ConPURCH ×ConMS_Rev					**0.004**	**0.23**
SIZE	0.003**	2.17	0.003**	2.02	0.002**	1.94
LEV	-0.053***	-9.90	-0.053***	-9.92	-0.053***	-9.95
CFO	-0.634***	-67.92	-0.634***	-67.92	-0.633***	-67.91
INVREC	0.031***	4.84	0.031***	4.80	0.031**	4.79
LOSS	-0.037***	-15.50	-0.037***	-15.5	-0.037***	-15.52
SalesGRW	0.015***	4.71	0.015***	4.72	0.015***	4.74
TACC	0.015**	1.96	0.015**	1.96	0.015***	1.98
ISSUE	-0.006**	-2.56	-0.006**	-2.54	-0.006**	-2.53
BIG	0.007**	2.50	0.006**	2.23	0.006*	2.38
LogTFEE	-0.007***	-3.18	-0.006***	-2.96	-0.006***	-2.76
OPIN	-0.097***	-5.47	-0.097***	-5.46	-0.097***	-5.47
CHANGE	-0.002	-0.67	-0.002	-0.65	-0.002	-0.70
Market	-0.010***	-4.54	-0.011***	-4.60	-0.010***	-4.55
Year	Fixed		Fixed		Fixed	
Industry	Fixed		Fixed		Fixed	
Adj. R^2	0.3689		0.3687		0.3685	
F-value	94.54***		94.48***		94.39***	
N	8,484		8,484		8,484	

〈표 5〉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 비감사 시장점유율에 따른
감사품질에의 영향: 회귀분석 결과 (가설2의 검증) (계속)

Panel B.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피감사회사 수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NAMS_N*)

$$PMDA_{it} = \delta_0 + \delta_1 PURCH_{it}(TaxPURCH_{ijt},\ ConPURCH_{ijt}) + \delta_2 NAMS_N_{ijt-1}(TaxMS_N_{ijt-1},\ ConMS_N_{ijt-1}) + \delta_3 \mathbf{PURCH_{it} \times NAMS_N_{ijt-1}(TaxPURCH_{ijt} \times TaxMS_N_{ijt-1},\ ConPURCH_{ijt} \times ConMS_N_{ijt-1})} + \sum Controls_{it} + \varepsilon_{i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PMDA*					
	Overall NAS		Tax service		Consulting service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138***	6.96	0.130***	6.88	0.130***	6.51
PURCH	-0.002	-0.73	0.001	0.13	0.000	-0.05
MS_N	-0.017	-0.93	-0.004	-0.24	-0.006	-0.49
PURCH ×NAMS_N	**0.038****	**1.96**				
TaxPURCH ×TaxMS_N			**0.026**	**1.07**		
ConPURCH ×ConMS_N					**0.007**	**0.34**
SIZE	0.003**	2.16	0.003**	2.03	0.002*	1.92
LEV	-0.053***	-9.91	-0.053***	-9.92	-0.053***	-9.96
CFO	-0.634***	-67.92	-0.634***	-67.91	-0.633***	-67.90
INVREC	0.031***	4.85	0.031***	4.82	0.031***	4.78
LOSS	-0.037***	-15.50	-0.037***	-15.53	-0.037***	-15.52
SalesGRW	0.015***	4.71	0.015***	4.72	0.015***	4.74
TACC	0.015**	1.96	0.015**	1.96	0.015**	1.97
ISSUE	-0.006**	-2.56	-0.006**	-2.54	-0.006**	-2.54
BIG	0.007**	2.12	0.006*	1.94	0.007**	2.46
LogTFEE	-0.007***	-3.16	-0.006***	-2.99	-0.006***	-2.71
OPIN	-0.097***	-5.47	-0.097	-5.46	-0.097***	-5.48
CHANGE	-0.002	-0.67	-0.002	-0.64	-0.002	-0.71
Market	-0.010***	-4.55	-0.011***	-4.59	-0.011***	-4.56
Year	Fixed		Fixed		Fixed	
Industry	Fixed		Fixed		Fixed	
Adj. R^2	0.3688		0.3687		0.3685	
F-value	94.53***		94.49***		94.40***	
N	8,484		8,484		8,484	

1) ***, **, *는 양측검정의 p-value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Panel A는 비감사 업무 매출액을 이용한 시장점유율을 사용한 결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구매여부와 이를 제공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의 상호작용 변수(*PURCH×NAMS_Rev*)는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나타냈다(회귀계수=0.037, t-값=2.03). 즉 피감사회사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감사인이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재량적발생액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감사품질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감사인 측면에서는 비감사업무 수입이 높은 감사인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피감사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비감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비감사 매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감사회사에 비감사서비스도 제공하게 되면 독립성이 낮아져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전체 비감사서비스 기준에서는 나타나나 세무서비스 및 컨설팅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비감사서비스별로 성격이나 제공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감사품질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한 결과는 피감사회사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사용한 Panel B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PURCH×NAMS_N*의 회귀계수가 0.038, t값 1.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재량적발생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피감사회사의 수가 많은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에서 감사품질이 훼손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수들의 결과는 Panel A, Panel B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PMDA*에 미칠 수 있는 유의한 영향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감사인의 감사집중도를 고려한 효과

비감사서비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양질의 비감사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전문성의 대용치로 본다면, 피감사회사에 대해 비감사 업무를 병행 제공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은 향상될 수 있다. 반면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 품질과 관련없이 비감사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여 이 분야에서의 수익을 잃지 않으려 한다면, 감사품질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비감사 매출을 확보하고자 할 유인을 가지게 되어 독립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감사서비스 품질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이에 두 번째 가설 검증에서 개별 회계법인 내 매출액 구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비감사)에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비감사를 동시 구매한 피감사회사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회계법인의 매출포트폴리오상 감사(비감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법인별 매출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회계법인의 감사집중도(*Waudit*)는 회계법인별 총 매출액 중 감사업무 수입 비중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감사집중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15] 〈표 6〉에 제시한 결과를 보면, 감사인에게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구매한 기업들은

15)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크게 감사수입과 비감사수입으로 구성되므로 감사 비중이 큰 그룹은 기계적으로 비감사비중이 작은 그룹을 의미한다. 여기서 *Waudit* 변수는 개별 회계법인 내 감사수입 비중을 의미하므로 High *Waudit* group이 Big4 회계법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6〉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에 따른 비감사서비스 구매와
감사품질 간의 관계: 회계법인의 감사집중도에 따른 그룹별 비교

$$PMDA_i = \gamma_0 + \gamma_1 PURCH_{it} + \gamma_2 NAMS_{ijt-1} + \gamma_3 \mathbf{PURCH_{it} \times NAMS_{ijt-1}} + \sum Controls_{it} + \varepsilon_{i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PMDA*			
	NAMS = NAMS_Rev		*NAMS = NAMS_N*	
	High *Waudit*	Low *Waudit*	High *Waudit*	Low *Waudi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154*** (5.31)	0.117*** (4.25)	0.153*** (5.29)	0.114*** (4.17)
PURCH	0.004 (0.88)	-0.005 (-1.00)	0.006 (1.13)	-0.007 (-1.38)
NAMS	-0.075 (-1.10)	-0.022 (-1.03)	0.033 (0.59)	-0.069** (-2.26)
PURCH×NAMS	**-0.050 (-0.75)**	**0.050** (2.34)**	**-0.051 (-1.08)**	**0.064*** (2.73)**
SIZE	0.000 (-0.05)	0.005*** (2.95)	0.000 (-0.14)	0.005*** (2.82)
LEV	-0.045*** (-6.05)	-0.059*** (-7.76)	-0.045*** (-6.02)	-0.059*** (-7.77)
CFO	-0.625*** (-47.62)	-0.644*** (-48.38)	-0.624*** (-47.54)	-0.644*** (-48.36)
INVREC	0.019** (2.12)	0.043*** (4.66)	0.020** (2.18)	0.043*** (4.68)
LOSS	-0.034*** (-0.034)	-0.040*** (-11.86)	-0.034*** (-10.07)	-0.040*** (-11.89)
SalesGRW	0.021*** (0.021)	0.009* (1.96)	0.021*** (4,65)	0.009** (1.94)
TACC	0.029*** (2.67)	-0.002 (-0.20)	0.030*** (2.69)	-0.002 (-0.18)
ISSUE	-0.004 (-1.20)	-0.009** (-2.49)	-0.004 (-1.19)	-0.009** (-2.48)
BIG	0.013** (2.27)	0.008 (1.39)	0.004 (0.59)	0.017** (2.40)
LogTFEE	-0.005 (-1.61)	-0.008*** (-2.62)	-0.005 (-1.59)	-0.008** (-2.47)
OPIN	-0.039 (-1.44)	-0.146*** (-6.16)	-0.039 (-1.46)	-0.148*** (-6.23)
CHANGE	-0.006* (-1.65)	0.004 (1.06)	-0.006* (-1.66)	0.004 (1.06)
Market	-0.009*** (-2.90)	-0.013*** (3.82)	-0.009*** (-2.86)	-0.013*** (-3.81)
Year & Industry	Fixed	Fixed	Fixed	Fixed
Adj. R^2	0.3596	0.3594	0.3594	0.3833
F-value	48.51***	48.74***	48.47***	48.87***
N	4,401	4,083	4,401	4,083

1) ***, **, *는 양측검정의 p-value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매출액 기준과 피감사회사 수 기준으로 측정한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감사집중도가 높은 표본에서는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감사집중도가 낮은(비감사집중도가 높은) 표본에서는 감사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집중도가 높은 감사인은 양질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감사인이 비감사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피감사회사로부터 비감사 업무 수임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제공하여 감사품질 훼손을 감수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4.3 추가분석

4.3.1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피감사회사 대상 비감사 수입을 제외하고 측정

추가분석에서는 먼저, 비감사 시장점유율 측정에 있어 피감사회사로부터 얻은 비감사수입을 제외하고 비(非)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한 비감사서비스 시장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경제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피감사회사와의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면, 회계법인이 비감사서비스에 보다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주요 수입원으로 특화하였을 것으로 볼 수

〈표 7〉 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 대상 비감사 수입을 제외하고 측정한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결과

Panel A. 구매의사결정 모형

Variable	Dep. = *PURCH*		Dep. = *TaxPURCH*		Dep. = *ConPURCH*	
	Estimate	Chi-sq	Estimate	Chi-sq	Estimate	Chi-sq
Intercept	-5.808***	90.52	-3.374***	17.96	-7.968***	90.07
NAMS_Rev_NC	**1.785*** **	**23.73**				
TaxMS_Rev_NC			**3.039*** **	**22.77**		
ConMS_Rev_NC					**0.811** **	**5.82**
SIZE	-0.007	0.03	-0.102**	4.69	0.046	0.76
LEV	-0.578***	15.75	-0.620***	10.91	-0.088	0.18
LOSS	-0.056	0.73	-0.130	2.26	-0.161*	2.83
LargeOWN	0.008	0.00	0.399*	3.03	-0.152	0.40
BIG	0.310***	14.8	0.124	1.26	0.313***	8.04
AF_LEV	-0.281	0.96	-0.228	0.37	-0.016	0.00
LogAFEE	0.417***	32.97	0.214**	5.30	0.418***	16.27
LogTENURE	0.058	1.30	0.156**	5.64	0.029	0.16
Year	Fixed		Fixed		Fixed	
Industry	Fixed		Fixed		Fixed	
Pseudo R^2	0.0697		0.0365		0.0619	
N	8,337		8,337		8,337	

〈표 7〉 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 대상 비감사 수입을 제외하고 측정한 비감사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결과 (계속)

Panel B. 감사품질 모형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PMDA*					
	Overall NAS		Tax service		Consulting service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139***	6.93	0.128***	6.75	0.131***	6.47
PURCH	-0.001	-0.45	0.001	0.38	0.000	0.10
MS_Rev	-0.013	-0.91	-0.006	-0.34	0.002	0.26
PURCH× NAMS_Rev_NC	**0.038****	**2.05**				
TaxPURCH× TaxMS_Rev_NC			**0.028**	**0.92**		
ConPURCH× ConMS_Rev_NC					**0.004**	**0.22**
SIZE	0.003**	2.49	0.003**	2.31	0.003**	2.24
LEV	-0.053***	-9.92	-0.053***	-9.95	-0.053***	-9.98
CFO	-0.635***	-67.39	-0.635***	-67.38	-0.634***	-67.37
INVREC	0.031***	4.82	0.031***	4.78	0.031***	4.77
LOSS	-0.037***	-15.36	-0.037***	-15.39	-0.037***	-15.38
SalesGRW	0.015***	4.74	0.015***	4.75	0.016***	4.78
TACC	0.016**	2.15	0.016**	2.15	0.016**	2.16
ISSUE	-0.007***	-2.72	-0.007***	-2.69	-0.007***	-2.69
BIG	0.006**	2.32	0.006**	2.12	0.005**	2.17
LogTFEE	-0.008***	-3.33	-0.006***	-3.05	-0.007***	-2.87
OPIN	-0.096***	-5.42	-0.096***	-5.41	-0.096***	-5.43
CHANGE	-0.002	-0.77	-0.002	-0.75	-0.002	-0.81
Market	-0.011***	-4.69	-0.011***	-4.74	-0.011***	-4.69
Year	Fixed		Fixed		Fixed	
Industry	Fixed		Fixed		Fixed	
Adj. R^2	0.3687		0.3686		0.3683	
F-value	92.88***		92.81***		92.71***	
N	8,377		8,377		8,377	

1) ***, **, *는 양측검정의 p-value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변수의 정의는 〈표 2〉를 참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감사서비스 품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감사 업무를 통한 감사업무로의 지식전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Panel A의 구매의사결정 모형의 결과, 전체 비감사 및 세무, 컨설팅 서비스 모두 새롭게 측정한 감사인의 비감사 시

장점유율(*NAMS_Rev_NC*)이 높을수록 현재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B의 감사품질 모형의 결과도 주요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전체 비감사 수준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非)피감사회사 대상 비감사 제공이 많은 회계법인 역시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제공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4.3.2 감사인의 감사시간 대비 총수입을 고려한 분석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예속관계(economic bonding)는 강화된다. 선행연구는 시간당 감사보수를 통해 투입 노력 대비 보수를 측정하여 감사능력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해 왔다. 본 추가분석에서는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으로 인해 피감사회사로부터 얻는 총보수의 증가가 감사인의 감사능력에 증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16] 감사시간 대비 총보수(감사보수+비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감사품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감사집중도(*Waudit*)에 따른 표본 집단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감사집중도가 낮은(비감사집중도가 높은) 표본에서는, 감사시간당 총보수가 재량적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감사집중도가 높은 표본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비감사 수입에 의존하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감사와 비감사를 병행 제공하게 되면, 비감사 시장점유율로 인해 감사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3.3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기에 따른 감사품질 차이

감사인과 감사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중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시기에 따라 쌍방의 유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계속감사기간 중 비감사서비스 구매 시기를 초도감사연도(*INITIAL*)와 그렇지 않은 연도(*AFTER*)로 구분하여 비감사 시장점유율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INITIAL*× *NAMS*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AFTER*×*NAMS*는 양(+)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감사와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 시 비감사서비스에 의존도가 높은 감사인의 경우 계속감사기간 중 초도연도 이후의 기간에 낮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감사회사와 관계가 지속될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감사품질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4.3.4 피감사회사의 고객중요도(client importance)를 고려한 분석

선행연구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함에 따라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감사 시에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고객중요도(client importance)라고 하며 감

16) 비감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 시간 단위가 '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와 같이 해당 업무에 대한 직접적 측정이 어렵다. 그럼에도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한 피감사회사의 감사 시에 투입하는 노력 대비 보수는 비감사 업무 보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 때 감사품질에 나타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인의 수입에서 특정 고객기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고객중요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선행연구는 고객중요도가 큰 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낮게 제공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감사인이 비감사 시장점유율과 함께 고객중요도가 큰 기업에 대해서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감사인의 수익관련 특성 중 하나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회계법인이 비감사업무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제공 경험이 많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감사업무보다 비감사업무로 인한 수입에 의존도가 높아 감사 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인이 동일 피감사회사에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한 논의는 규제기관 및 학계와 실무계가 의견을 달리하는 중요한 현안임에도 실증결과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을 전체 비감사서비스와 세무 및 컨설팅서비스 시장에서 회계법인의 연간 점유율로 측정하며, ①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 기준과 ② 상장회사 수 기준의 두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여 감사인의 비감사 시장점유율이 피감사회사의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 구매의사결정과 이 때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피감사회사가 현재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감사서비스 뿐 아니라 세무서비스 및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감사인의 수익비중이 높아질수록 해당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구매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피감사회사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익비중이 높을수록 피감사회사의 재량적발생액이 증가함을 발견하여 해당 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비감사분야의 수익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경우, 비감사서비스로 인해 감사인 독립성이 훼손되어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의 경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 혹은 고객중요도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실증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감사인 자체의 수익에 따른 특성이 피감사회사의 구매의사결정과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에 따른 독립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회계법인의 비감사 분야 전문성을 체

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감사 수익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자료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어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업이 비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는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검증결과는 기업의 구매 의사결정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 구매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셋째, 동일 회계법인 내에서도 개별 팀이나 개인 공인회계사 혹은 파트너, 감사수행 사무실(office) 수준에 따라 보유하는 능력이 다를 것이며, 서비스 품질 역시 차별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개별 회계사 또는 담당이사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수집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회계법인 수준에서 연구주제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사무실이나 개별 회계사 수준의 연구에 비해 정치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을 수 있다. 넷째, 세무서비스와 컨설팅서비스로 구분하여 세부 비감사서비스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실증결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서비스의 성격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후의 연구에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수영 · 손성규(2002),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의 병행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및 독립성 제고 방안," **회계저널**, 11, 209-252.

마희영 · 오광욱 · 채수준(2014), "회계 환경 변화에 따른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본시장의 인식 변화," **회계연구**, 19, 21-45.

이영한 · 윤성만(2011),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기업의 외부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6, 185-219.

이창우 · 곽수근 · 전규안(2002),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회계저널**, 11, 253-276.

최종학 · 박종일 · 전규안(2005),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0, 121-154.

홍준영 · 류지윤 · 윤성수(2006),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 감사 투입시간 분석," **회계저널**, 15, 69-89.

Balsam, S., J. Krishnan, and J. S Yang(2003),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Earnings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71-97.

Beck, P. J., Frecka, T. J., and Solomon, I.(1988), "A Model of the Market for MAS and Audit Services: Knowledge Spillovers and Auditor-auditee Bonding,"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7, 50-64.

Butler, M., A. J. Leone, and M. Willenborg(2004), "An Empirical Analysis of Auditor Reporting and its Association with Abnormal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7, 139-165.

Chung, H., and S. Kallapur(2003),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8, 931-955.

DeAngelo, L(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83-200.

DeFond, M. L., J. R. Francis, and T. J. Wong (2000),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market segmentation: Evidence from Hong Kong,"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9, 49-66.

DeFond, M., and J. Zhang(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 275-326.

Dopuch, N., and D. Simunic(1982), *Competition in Auditing: An assessment,* In Fourth Symposium on Auditing Research, University of Illinois.

Dopuch, N., and R. King(1991), "The Impact of Mas on Auditors' Independence: An Experimental Markets Stud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60-98.

Emby, C., and R. A. Davidson(1998), "The Effects of Engagement Factors on Auditor Independence: Canadian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7, 163-179.

Fan, J. P., and T. J. Wong(2005), "Do External Auditors Perform a Corporate Governance Role in Emerging Markets? Evidence from East Asi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3, 35-72.

Ferguson, M. J., G. S. Seow, and D. Young(2004),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UK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1, 813-841.

Firth, M(1997),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by Accounting Firms to their Audit Clien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4, 1-21.

Fortin, S., and J. A. Pittman(2008), "The Impact of Auditor-related Tax Services on Corporate Debt Pricing,"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0, 79-106.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2002),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77, 71-105.

Gleason, C. A., and L. F. Mills(2011), "Do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Improve the Estimate of Tax Reserv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 1484-1509.

Kinney Jr, W. R., and R. Libby(2002), "Discussion of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7, 107-114.

Kinney, W. R., Z. V. Palmrose, and S. Scholz (2004), "Auditor Independence, Non-Audit Services, and Restatements: Was the US Government Righ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 561-588.

Kothari, S. P., A. J. Leone, and S.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63-197.

Krishnan, G. V(2003), "Does Big 6 Auditor Industry Expertise Constrai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17, 1-17.

Larcker, D. F., and S. A. Richardson(2004), "Fees Paid to Audit Firms, Accrual Choices,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 625-658.

Lassila, D. R., T. C. Omer, M. K. Shelley, and L. M. Smith(2010), "Do Complexity, Governance, and Auditor Independence Influence Whether Firms Retain their Auditors for Tax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2, 1-23.

Lawrence, A., M. Minutti-Meza, and P. Zhang(2011), "Can Big 4 Versus Non-Big 4 Differences in Audit-quality Proxies be Attributed to Client Characteristics?" *The Accounting Review,* 86, 259-286.

Li, C(2009), "Does Client Importance Affect Auditor Independence at the Office Level? Empirical Evidence from Going-Concern Opin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 201-230.

Lim, C. Y., and H. T. Tan(2010), "Does Auditor Tenure Improve Audit Quality? Moderating Effects of Industry Specialization and Fee Depen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7, 923-957.

McGuire, S. T., T. C. Omer, and D. Wang(2012), "Tax Avoidance: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 975-1003.

Neal, T. L., and R. R. Riley Jr(2004), "Auditor Industry Specialist Research Desig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3, 169-177.

Parkash, M., and C. F. Venable(1993), "Auditee Incentives for Auditor Independence: The Case of Nonaudit Services," *The Accounting Review,* 113-133.

Reichelt, K. J., and D. Wang(2010), "National and Office-specific Measures of Auditor Industry Expertise and Effects on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8, 647-686.

Ruddock, C., S. J. Taylor, and S. L. Taylor(2006),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Conservatism: Is Auditor Independence Impaired?"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3, 701-746.

Salterio, S., and R. Denham(1997), "Accounting Consultation Units: An Organizational Memory Analysi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4, 669-691.

Simunic, D. A(1984), "Auditing, Consulting, and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679-702.

The Effects of Auditor's Non-audit Market Share on Firm's Decision to Purchase Non-audit Service from Incumbent Auditor and Audit Quality

Woo Jae Lee* · Seok Woo Jeong**

Abstrac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associations between auditor's non-audit market share on firm's decision to purchase non-audit service(NAS) from their incumbent auditor, and then investigates whether auditor's non-audit market share affect the relation between firm's auditor-provided NAS purchase and audit quality.

If an audit firm has a large non-audit market share, it can be regarded as it has enough experience and skill for (overall or a particular) NAS. On the other hand, this brings concerns that such an auditor might hardly perform its supposed duty of providing audit service.

Prior research has examined whether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 by auditors impair their independence on the basis of economic relation between audit firm and auditee. While previous studies focus on the auditor's economic dependence or client importance from the joint provision of audit and other services, however, they do not provide consistent results.

To test our hypotheses, we use the 8,484 firm-year observations of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and Kosdaq for the period 2005 through 2012. We employ the logistic regression to test first hypothesis that whether firms tend to consider incumbent auditor's non-audit market share to make decisions about NAS purchase. We then test the second hypothesis by using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as a proxy of audit quality in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s following prior literatur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rm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NAS from their incumbent auditors if they have large non-audit market share. Second, in this case audit

* Visiting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First Author
**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Corresponding Author

quality measured by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is on average negatively associated with non-audit market share of the auditor. In particular, this result is found when the weight of audit service is low in an auditor's portfolio share.

Additionally, these results are robust when (1) we use other measurement for auditor's non-audit market share, (2) we consider the impact of total fee per audit hour on audit quality of firm purchased auditor-provided NAS, and (3) we distinguish the impact of purchase timing of NAS from audito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firms' NAS purchase decision and the audit quality when auditors provide non-audit service to the same auditee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auditors' non-audit market share. Although prior research provides some evidence on whether auditors are compromised by NAS in various countries, they do not investigate the effect of audit firms' characteristic of revenue structure. We expect that our results would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and regulators in recent moves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auditors' joint provision of audit and NAS.

However, there needs to be a special attention to interpret our results, because we do not broadly consider audit firms' human resources or education programs. More importantly, although specific partners or teams in an audit firm could have different abilities to make quality of particular services, we do not consider these factors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availability.

Key words: Auditor-provided non-audit service, Non-audit market share, Purchase of non-audit service, Audit quality

• 저자 이우재는 현재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 전공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감사품질, 비감사서비스와 회계정보, 재무분석가 예측특성 등이다.

• 저자 정석우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및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행위, 공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정보, 감사품질 등이다.